

中世의 放浪教師와 그 후예들

—大學史上的 教授像 ①—

李 光 周

(仁濟大 史學科)

大學史上的 教授像

1. 中世의 放浪教師와 그 후예들
2.)
3.)
4.) 다음호 게재(예정)
5.)
6.)

1. 머리말

교육, 특히 고등교육은 전통사회에서, 오리엔트 세계나 유교 문명권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종파나 국가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관리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고대 그리스—로마에 있어서는 공교육의 관념이 없었으며, 교육의 장은 교사들의 學院이었다. 교사가 있는 곳에 학생이 모여들고 학교가 생겨났던 것이다. 그리스 학원 중의 대표적인 것은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

미아(철학)와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교였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소크라테스는 당시의 대표적인 私的 교사였으며, 소피스트들은 전형적인 직업적 교사집단이었다. 이러한 그리스적인 전통은 그대로 고대 로마에 이어져 로마에도 공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시 교육과 학문의 담당자들이었던 휴머니스트들은 모두가 사적 교사였으며, 그 대표적인물은 키케로이다.

이상과 같은 고전 고대의 전통은 교육이 대체로 교회에 의해 관장된 그리스도교적 중세에 이르러서도 맥맥이 이어져 세속적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물론, 신학의 중심지인 파리에서도 교사들에 의해 사적으로 세워진 많은 학원이 존재하였다. 유럽 최초의 대학인 파리와 볼로냐의 대학은 바로 이 사적 학원의 교사와 학생들의 길드(조합)가 발전하여 성립된 것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대학 성립 당시의 교사들이 소피스트들과도 같은 '방랑교사'였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대학교수의 원형은 바로 교회나

국가 및 도시와 같은 어떠한 ‘公權力’으로부터도 독립된 그림으로써 ‘자유로운 巡遊性’을 그 본질로 하는 방랑교사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연히 유럽의 학문과 교육 그리고 그 지적 전통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放浪教師와 중세의 知的 풍경

봉건사회에 있어 사람들은 토지에 얽매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중세의 12세기는 역사상 ‘대이동의 시대’로서 기록되고 있다.

성직자, 기사, 상인, 장인, 광대 등과 더불어 학도들, 즉 교사와 학생도 있었다. 그들은 혹은 무리를 지어, 혹은 홀로 나그네 길을 떠났다. 12세기 대이동의 시대는 방랑자의 시대였다.

오늘날 우리들의 여행이란 필경 ‘놀이’의 속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고향 밖의 세상이 바로 오리무중의 미지의 세계였던 중세인에게 있어 방랑이란, 신명을 내건, 비장한 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서를 써 놓고吉日을 택하여 여로에 올랐다고 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중세의 이동성을 그리스도교 세계의 세계주의적 경향과 관련짓고 있거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집’이나 ‘가정’의 관념이 없었으며 더욱이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정주’의 땅이 없었다.

“처음에 길이 있었다.”— 길은 옛 로마 街道로서 주교좌 성당이 있는 도시를 잇고 그 사이 사이에 읍과 마을, 성지, 수도원이 산재하였다. 당시의 하루 행정은 20~30 마일이었으며 학도들은 대개 7~8명씩 무리를 지어 성가를 부르고 구걸을 하면서 편력하였다. 그리하여 ‘방랑학도’(clerici Vagantes)들은 ‘걸식 학생’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구걸은 ‘가난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하여 중세에서는 조금도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다. 갖가지 어려움과 맞서며 오직 배우고자 하는 의지, 학문적 관심으로 하여 스승과 서적을 찾아 방랑하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해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루서는 1158년 ‘면학을 위해 여행하는 학도들을 위한 특권’ 교서를 내렸다. ‘학현장’으로 불리우는 이 교서에

의해 교회와 군주 및 도시는 학도들을 보호함은 물론, 훗날 대학 자치의 기초가 되는 여러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

방랑교사는 12세기 초부터 모습을 나타내고 13세기에는 그 수가 급증하였다. 그들은 처자를 거느리고 편력하였으며 그 목적지는 주교좌 성당이나 궁정의 소재지 그리고 도시였다. 이 세 곳이야말로 대학 성립 이전의 당시의 지적 중심지였으며 그들이 학생을 모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대학 성립 이전의 지적 풍토에 관해 살펴보자.

12세기의 국왕—대제후의 궁정은 라틴어문학, 국어문학의 ‘원천’으로서 일컬어지고 ‘교양있는 王’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귀족 계급은 우리의 士大夫 계층과는 달리 원래 서적과는 거리가 먼 戰士 집단이었다. 파리 클루니 미술관에는 수렵하고 향연을 벌이고 기악을 즐기고 귀부인과 사랑을 나누는 봉건 귀족의 생활을 묘사한 거대한 네 쪽의 옛 태피스트리가 걸려 있다. 그런데 그 작품의 어디 한 구석에도 서적이 놓인 공간은 없다. 문자는 유럽의 귀족사회에서는 秘儀的인 것으로 비쳤을 뿐 그들의 교양은 마술, 펜싱, 사교술에 국한되어 있었다. 데다수의 귀족은 당시 지식인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한 마디도 못하였다. 그들의 城館에 어쩌다 음유시인, 광대가 묵고 가는 일은 있어도 학식자가 출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유명한 12세기의 학자인 슬즈버리의 존은 “궁정이 사랑하고 듣고 자랑함은 오직 閑良일 뿐.”이라고 풍자한 바 있었다. 독일 최초의 대학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세운 選帝侯 루프레히트 1세. 자신은 자기 이름도 못쓰는 문맹자였다.

중세의 지식인은 성직자였으며 지식과 학문의 센터는 오랫동안 수도원이었다. 수도사들의 일과는 기도와 노동 그리고 학습으로 나누어졌거나 그 중에서도 학습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수도원에는 책을 만드는 ‘사본공방’이 있었다. 많은 수도사들이 교회의 공용어인 라틴어와 성서학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7자유학예(3학—문법·변증법·수사학, 4과—수학·기하·음악·천문학)에도 능통하였다. 그러나

수도원의 학습은 필경 성서와 敎父들에 관한 것이요 筆寫라는 것도 ‘펜과 잉크로써 악마와 싸우는’ 과제를 의미하였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12세기의 주교나 대주교 등 고위 성직자 중에도 문맹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3세기말의 10년 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騎士 수도원의 경우 관구장 이하 모두가 문맹이었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다.

이제 우리들은 수도원이나 성당학교 및 궁정 사회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지적 중심인 도시에 관해 생각해 보자.

12세기의 상업혁명에 힘입어 급성장한 도시는 경제적인 富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自治都市)를 누렸으니 그 모든 것은 바로 지적 문화적인 양양으로 연동되어 법학·라틴어고전·그리스 철학 및 과학 등 대체로 세속적 학풍으로 특징지어지며 그리고 도시적 세 문명(civilization)을 告知하는 ‘12세기 르네상스’가 꽃피었던 것이다.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도시의 자유는 위계질서와 역할이 미리 정해진 성직자와 귀족이 다스리는 봉건사회에 전혀 새로운 인간형을, 모든 운명을 자신의 능력에 건 자유롭고 지적인 삶의 양식을 창출하였다. 대학은 바로 이 근대적인 삶의 요람인 도시 속에서 도시의 요구에 대응하여 탄생되었던 것이다.

유럽 최초의 대학은 파리에서 성립하였다. 인구 1만의, 교회의 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파리는 11세기에 이미 노트르담 성당 주변에 몇 개의 학교가 문을 열고 있었으며 12세기 초에는 크게 발전하여 파리는 점차 유럽 전체의 지적 중심, 특히 신학의 메카가 되었다. 이렇듯 파리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은 다름 아닌 방랑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노트르담 주변에 여러 교양과목과 철학, 신학, 법학 그리고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저마다 세웠으며 3,4천 명을 헤아렸던 교사와 학생들은 특히 노트르담에서 가까운 서부 지역에 학원가를 형성하였다. 그 학원가는 그곳에 거주하고 왕대하는 교사나 학생들이 라틴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라틴구’라고 불렸다. 파리 대학은 학원이 준비한 그 거리에 바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사 중의 교사는 당시 최고의 학식자로 이름 높았던 자유로운 방

랑의 교사, 논쟁의 기사인 아베라르였다.

프랑스 전역과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칸디나비아 등 전 유럽에서 모여든 교사와 학생들은 점차 학도로서의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갖게 되었으니, 교사와 학생 길드로서의 대학 창립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3. 大學의 성립과 敎授의 특권

대학(studium 혹은 universitas 라고 칭함)은 ‘교사와 학생의 공동체’로서 성립하였다. 그 명칭이 말하여 주듯이 대학은 교사와 학생의 자치적 공동체로서 교회나 속권의 공권력과는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족하였다.

대학의 자치적 성격은 특히 대학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지는 학장이 교수 혹은 학생 전원에 의해 선출된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수와 학생은 자치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특권을 받았다. 학문에 종사하는 학도들에게 정신적·신체적·법적·경제적 특권을 부여함은 일찍이 로마의 시민법에서도 명기된 바 있거니와 교회법은 특히 그것을 강조하였다.

그 특권에 있어 특이한 것은 대학의 재판권이 있었다. 중세를 통해 교수와 학생은 대학의 독자적인 재판권에 예속되며 교회법이나 국법 및 도시의 법률에 구속받지 않았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도시 속에 소재하면서 자기 고유의 특권을 누린 대학은 왕왕 도시와의 마찰을 자아내었다. 이른바 ‘타운과 가운의 싸움’이다. 도시와의 싸움에서 대학은 전가의 보도처럼 ‘강의 정지’(cessation)와 ‘이주’(migration)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강의정지권은 교황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대학이 그 자신이 소재한 도시로부터의 ‘이주’의 권리와 바로 이어졌다. 한 예로서 1228~29년의 사육제 소동 때 파리 대학은 6년 동안 파리를 떠났다. 이때 교수와 학생 일부는 영국 왕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 영국으로 이주하여 때 마침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옥스포드 대학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여러 지방 대학들도 이때 파리 대학의 이주에 의한 교수와 학생들이

모체가 되어 창건되었다.

파리 대학의 '교수'에 관련하여 먼저 그 명칭인 'doctor'에 관해 살펴보자. 'doctor'의 칭호는 중세에 있어서 'magister' 및 'professor'와 같은 의미, 즉 '교수'를 뜻하였다. 파리 대학과 그 파생대학에서는 '마기스테르'가 자주 쓰이고 '프로페소르'는 때때로, '도그토르'는 드물게 쓰였다. 그러나 볼로냐의 교수들은 특히 '도그토르'의 칭호를 애용하였다. 법학교수들을 'doctores legum'이라고 칭하였듯이. 한편, 15세기경 영국의 옥스—브리지에서는 상급 학부의 교수들은 '마기스테르'로 통일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오늘날의 '프로페소르'가 일반화되는 것은 근세에 이르러서였다.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인정된 교수(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중세의 도시에는 사적 교사가 수없이 많았다.) 밑에서 5~7년간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교수면허'(licentia docendi)를 취득하여야 하였다. 처음으로 강의할 행하는 신입 교수는 大法官(chancelier)으로부터 축복과 함께 서적(교수직의 상징)과 반지(학문과의 결혼) 및 진경별의 휘장을 받는 것이 통과례처럼 되고 있었다. 그 의식은 '시업식'(incepti)이라고 불리웠다. 이 '인셉티'의 표현에는 교수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길드적 연대와 '독점'의식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학생→조교(bacca arius)→교수라는 학도의 제도적 위계 질서(그것은 상공업 길드의 도제→장인→마이스터라는 위상과 대응하는 것이었다.)가 '학도들의 자유로운 길드'라는 대학과 방랑교사가 그 원형이었던 教授像의 본질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변질의 모습과 문제성에 대해서는 別稱에서 논의하겠거니와 여기에서는 자유로운 방랑교사로서 일관한 아베라르가, 정식 교사로서 요구된 수학기간을 단축하고 스승의 허가 없이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그가 講筵을 펼쳤던 리용에서 축출당하고 종교회의로부터도 '교사의 임석없이' 강의를 했다는 낙인이 찍혔음을 말하고 싶다. 원래 라테라노 公會議는, 능력이 인정되는 한, 요구하는 모든 학도들에게 '교수면허'가 주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던

가.

교사들의 연령은 비교적 젊었다. 20세가 되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문 수준이나 정신적 연령에 있어서도 학생(그들은 대개 12~18세)과 크게 차이가 없어 왕왕 학생들과 작당하여 파렴치한 사건의 공범자가 되기도 하였다.

파리 대학과 그것을 모범으로 하여 세워진 알프스 이북의 여러 나라 대학교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중세를 통해 성직자 신분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활은 교회가 지불하는 聖職祿(bénéfice)에 대체로 의존하였다. 성직 신분으로서의 교수들에게 가해진 의무는 단지 독신이라는 것 뿐이었다. 그들은 결혼하면 교직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남유럽 교수의 경우 그들도 성직 신분이라는 하였으나, 결혼 금지의 규칙은 없었다. 단지 학장에 한해서 學僧에 대한 그의 재판권 행사를 위해 대개 미혼의 학생에게 그 직책을 맡겨졌을 뿐이다.

파리의 교수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여러 지역에서부터 모여들었으며, 자기 나라의 언어가 아닌 라틴어의 일상적인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인은 바로 코스모폴리탄이었다.

대학인의 세계시민적 성격(그것은 또 그들의 학도다운 방랑성과도 깊이 관련된다.)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서 '同鄉會'(nation) 조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학부'(faculté)보다도 중세 대학의 본질을 더욱 잘 나타내는 동향회는 상호 보조와 상호 방어를 목적으로 국적을 공유하는 학생 및 교수들의 단체이며 수적으로 우세한 국민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즉, 프랑스 동향회(이탈리아, 스페인 등 모든 라틴계를 포함), 노르망디 동향회, 피카르디 동향회(홀랜드계 포함) 및 잉글랜드 동향회(독일과 북유럽계 포함)가 그것이다. 한때 파리 대학의 교수 중에는 프랑스 출신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학장 중에는 프랑스 이외의 출신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시대도 있었다.

중세에 있어 학문과 교육은 신을 위해 신을 찬송함을 지상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성직 신분인 교수는 학생과 더불어 켈리지에서 수도사적 공동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도

사적 교수상에도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요구할’ 수는 없었다. “지혜와 교육 그리고 지식은 매매되지 않는다.”라는 대학의 성립 당시 자주 인용된 솔로몬의 잠언은 대도시(13세기의 파리는 5만 인구의 큰 도시이고 대학의 학생수도 5천 명을 헤아렸다.)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점차 교수들의 심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그리하여 지식의 장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된 교사는 상인이나 장인과의 교류를 통해 ‘직업’으로서의 교사에 눈을 떴던 것이다. 얼마전만 하여도 賣文 행위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거대한 도시 파리는 교사들을 ‘언어의 상인’으로 만들었으며 신에게 속하는 지식을 파는 ‘지식도둑’이 되기를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프랑스 아날파의 역사학자 르고프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말해 준다.

“전문적인 장인인 지식인은 스스로 그 소임을 다한다는 강한 직업의식을 지니며 학문과 교육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식이 더 이상 비밀스럽게 축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학교는 상품처럼 많은 사유가 송출되는 일터이다. 도시의 일터에서의 교사는 사물을 창출하는 정열로 하여 장인이나 상인의 가까운 존재였다.”

4. 教授의 위상과 講義 및 討論

파리 대학은 그 조직과 제도면에서 근대 대학의 원형을 이룬다.

대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학부, 즉 신학부, 교회 법학부, 의학부의 세 상급학부와 하급학부인 學藝 학부로서 각 학부는 교수단이 선출하는 교수 출신의 학부장이 다스렸다. 이제 이들 학부와 교수방법을 통해 중세 교수의 위상을 살펴 보자.

먼저 학예학부의 교수들에 관해 생각해 보자. 자유학예는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중세 학교교육의 주종을 이루었으며 대학의 학예학부는 그 전통 위에 이루어진 기초 학부였다.

학예학부 교과과정의 중심은 문법과 논리학이

있으며 강의의 주체는 특히 논리학이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이 영구불멸의 교본으로서 쓰여졌다. 교양 제과의 학습은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그것에 해당되고, 상급학부 진학의 예비교육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그 교수들은 중세를 통해 다른 학부 교수보다도 격이 낮았으며, 교양학부 내에서도 수사학, 문법의 교수는 철학교수보다도 경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그토르 학위나 교수면허가 문법교수에게는 반드시 불가결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도 반영되었다. 파리 대학을 비롯하여 알프스 이북의 대학에서는 학생의 태반이 상급학부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학예학부의 교수가 단연 수적으로는 우세하여 그 장이 파리 대학 전체의 학장이 되어 왔다.

학예학부의 교수는 초급학교 교사나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졸업생들도 대개 교사로 진출하였다. 당시 초급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교장을 제외하면 임시직으로, 교직은 성직자가 되기 이전의 예비단계로 여겨졌으며, 사실 성직자의 중간층은 대체로 학예학부 출신이었다. 교사직 외에도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의 개인적 가정교사가 되는 졸업생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18세기에 이르도록 지속되어 유럽 지성사는 많은 저명한 철학자들이 가정교사 경력 소지자임을 말해준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강의는 교수가 저마다 빌린 건물이나 홀에서 행하여졌다. 대학은 그 초기에 校舎를 포함한 고유 재산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도 교수의 자치와 권한을 높이는 데 크게 기능하였다. 강의방법은 모든 학부를 통해 교본을 읽어주고 때때로 주석을 가해 문자의 의미를 밝히고 또 어찌다 학생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하였다. 교본은 문법의 경우 로마의 문법교사인 도나투스나 프리스키아노스의 저작이었다. 수사학의 교본은 키케로의 저작이 사용되고,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등 고전 시인을 학습함으로써 더욱 연마되었다. 논리학에서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절대적이었다.

교수를 포함하여 당시의 교사란 무엇보다도 구술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근세까지

도 이어져 프랑스에서는 교사는 ‘읽는 사람’(lecteur)으로 표시되고 독일에서도 강의한다 함은 ‘낭독한다’(vorlesen), ‘독서한다’(lesen)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강의의 어조는 교회 설교사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학생들은 설교에서와 같이 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억에 의해 관념을 머리 속에 깊이 심기 위해 들었다. 구술 강의와 그에 따르는 학생들의 반복되는 口誦은 서적이 희귀했던 그 시대의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지 모른다.

중세의 강의를 권위 있는 교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은, 지식이란 권위있는 저작가로부터 전승된다는 중세의 학문관을 잘 말해 준다. “우리들이 원전을 잘 이해할 때 우리들은 그 원전과 관련된 학문의 전부를 안다.”라고 한 당시 어느 철학자의 말은 중세 교육의 본질을 또한 잘 말해준다 할 것이다.

당시 ‘교육’을 의미한 ‘insignare’ ‘doctere’라는 낱말은 ‘(지식을) 알려준다’를 뜻하였다. 교육이란 교사가 지식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함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educere’(‘education’의 어원), 즉 ‘끄집어낸다’ ‘육성한다’의 의미로서 쓰이게 되는 것은 15세기경의 휴머니스트들에 이르러서였다.

이제 ‘토론’에 관해 생각해 보자. 원래 고대와 중세 교육의 대중을 이루며 대학 교과과정의 중심과목인 3학(문법·변증법(논리학)·수사학)은 논쟁적 학문이었거니와 교사 또한 그 본질상 ‘논객’이었다. 그리하여 중세 대학과 교수의 특징을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토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토론’은 오늘날 대학에서 하는 세미나와도 같다. 교수는 특정 테마를 자유롭고 깊이 있게 제시하고 학생들은 강의에서 배운 변증법의 원칙을 활용하고 그림으로써 推論의 정당성을 스스로 시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뛰어난 교수는 강의를 조교에게 맡기고 오후에 있는 토론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토론을 주관할 때 교수는 조교로 하여 학생의 반대 의견에 답하게 하고 토론의 결론을 내린다. 토론에는 다른 교과과정의 학생들도 참가하였으며, 교수는 헤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공개적인 ‘자유토론’을 주

제해야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부 전 교수와 학생이 참가하여 때로는 교회와 정치의 현실문제도 논쟁하는 등 모든 테마가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철학과 신학 간의 미묘한 문제 혹은 뒤에서 논의하는 바, 교수와 대학의 자유의 문제까지도 야기시켰다. 호이징가는 아베라르에 관한 글에서 중세 대학의 ‘토론’을 당시 騎士의 馬上 경기와 비유한 바 있거니와 철학적으로 진행된 그 ‘토론’ 속에 우리들은 기록적(천문학)이며 經學의인 오리엔트 세제나 유교사회와는 이질적인 논쟁적 유럽의 知와 그 담당자들의 패턴을 본다 할 것이다.

카톨릭적 중세는 신앙이 학문에 우선하고 학문을 규제한 시대이며, 교사와 학생이 성직신분이었던 시대이다. 더욱이 파리 대학은 신학부 중심의 대학으로 출범하였다. 14세기말까지도 로마교황청은 ‘주님의 집의 빛나는 등불’인 파리 대학의 신학부에 일종의 독점성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신학교수는 당연히 대학의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신학교수의 자격으로서 교황이 부여하는 ‘만국 교수 면장’(licentia ubique docendi)은 모든 그리스도교 나라에서 유효하였다. 그들에게는 상급의 성품이 요구되었으며 신학교수 중에는 주교도 있고 대성당의 명성높은 설교자들도 많았다. 1254년 당시 파리 대학의 신학교수는 15인이었다. 그 중 3인이 노트르담의 참사회원이었고, 9인은 수도사였으며 나머지 3인만이 속인 출신이었다.

대학 성립 당시에 7자유학예가 교육의 기초라던 신학은 그 완성으로서 인식되었다. 신학 강의와 연구는 성서와 그리스도교의 도그마의 완벽한 개요로서 이해된 페트루스=롬바르두스의 『命題集』에 의해 행하여졌다. 그리고 교부들의 저술과 당대 신학자들의 주석이 그것을 보충하였다. 13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많은 신학교수들도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울어졌다. 그런데 파리의 신학부는 학문적 사명에 더하여 검열 제도가 체계적으로 없었던 중세에 있어 사상적 감시와 검열의 기능도 다하였다.

다른 학부의 학사학위 취득에는 6~8년의 면학이 요구되었으나 신학에서는 15년이 요구되고, 35세 미만에서는 신학박사(교수)가 될 수

없었다. 약 30세였다는 당시의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신학교수는 모두가 노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신학은 모든 면에서 권위를 필요로 한 것이었던가.

신학부의 교수나 학생 중에는 어쩌다 귀족 출신이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수도원이나 교단, 성당에 복귀한 대학 출신자의 자제로서 어릴 때부터 '신에게 바쳐진 아이들'이었다. 신학부 졸업생들은 대개가 설교사나 사제의 길을 택하였으며, 교회 부속학교의 교사들도 있었다. 13세기의 거의 모든 교황이 파리의 신학부 출신이었으며 그 중에서는 교수가 된 교황도 두 사람이나 있었다. 알프스 이북에서 '성직'은 바로 '직업'의 동의어를 의미하였다. 그만큼 국왕이나 유력한 귀족의 고급 관리, 비서, 고문, 외교관 그리고 의사, 건축가, 교회 법률가도 배출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법학부 교수에 관해 살펴보자. 파리 대학 법학부의 정식 명칭은 교회법학부였으며, 거기에서는 교회법에 한정하여 교육하고 연구하였다. 이 점에 있어 그것은 시민법을 주로 교수하였던 볼로냐의 법학부와는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파리는 수학과정이나 교육방법은 실질적으로 볼로냐를 본받았다. 중세 법학교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오히려 볼로냐의 교수들에 관해 논의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볼로냐 대학은 파리 대학과 더불어 유럽 대학의 원형을 이룬다. 볼로냐의 시민들은 오늘날에도 자기들의 도시를 '대학의 모교'(alma mater studiorum)라고 자랑한다. 그런데 파리 대학이 교수가 주동이 되고 신학연구 중심인 데 비해 볼로냐 대학은 학생 길드로서 로마법(시민법) 연구를 중심으로 출범하는 등 두 대학은 여러 가지로 대조적이었다.

볼로냐 대학은 이탈리아에서의 도시 번영에 뒷받침된 12세기의 로마법 때 부흥에 힘입어 세워졌으며, 그 모체는 몇 개의 公證人 학교였다. 원래 법학의 전통은 변증법(신학과 논리학)을 중요시한 알프스 이북과는 달리 수사학 중심의 이탈리아의 세속적인 학풍과 깊이 관련되어 발전하였다.

볼로냐 학생의 절반은 이탈리아인(속인)이었

으며, 절반은 알프스 이북 출신(성직자)이었다. 일찍부터 '부유한 도시', '배움의 도시'로서 일컬어졌던 볼로냐가 많은 '법학 도그토르'의 존재로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은 12세기말에 이르러서였다. 특히 당대 최고의 법학자인 이르네리우스의 강의를 듣기 위해 귀족 자제들과 고위 성직자들이 유럽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법학자들은 시정부의 고문이었으며 또한 사적 교사로서 저마다 약간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법학생 집단이 길드를 만들고 1155년으로 추정되는 대학 창립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학생 길드로서 출발한 볼로냐 대학 최고의 관리 기반은 학생들이 구성한 총회였으며, 학장직에는 재력이 있는 법학부 학생이 관례적으로 선출되었다. 학장은 교수를 포함한 대학의 전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과 감독권을 지녔으며, 교수 선임의 권한도 장악하였다. 그리고 교수들은 그 계약을 학생과 맺고 교수의 평가도 학생이 얼마나 많이 그의 강의를 듣느냐에 달려 있었다. 교수의 봉급은 도시의 지출과 귀족의 기부 그리고 특히 학생의 수업료로써 충당되었다. 그런데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예속은 교수의 지적자유나 그들이 누렸던 사회적으로 높은 위상을 거의 해치지 않았다. 한 교수는 자기의 학생에 관해 "나는 그들에 명령하고 그들에 복종한다."라고 말하였거니와 교수는 대학의 주인격인 학생들에 대해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학생 또한 교수를 '스승'이라 부르며 신뢰하였다. 더욱이 교수와 학생은 대외적으로는 학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과시하였다.

12세기는 법학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거니와 법학교수의 지위는 대단히 우월하였다. 특히 시민법의 교수는 때때로 '고귀한 사람, 지고의 시민'으로서 존경받았다. 그리하여 법학교수의 칭호를 바라며, 부귀를 누리려 온 많은 인사들이 대학으로 들어 왔다. 도시 공동체는 특히 법학교수 중에서 대사나 고급관료를 임용하였으며, 고위 성직에 취임한 교수도 많았다. 저명한 大學史家인 라슈돌에 의하면, 볼로냐 초기의 교수만큼 높은 지위의 교수는 대학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으로서의 법률 발전에도 크게 가능하며 지난날 교회로부터, 의학과 함께 물질적인 욕망을 위한 세속적 학문으로 전대받았던 시민법이 13세기에 이르러 군주나 도시와 마찬가지로 교회까지도 법학과 법학교수의 힘을 빌려야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 사실은 그와 때를 같이한 신학의 쇠퇴와 더불어 유럽의 사회사

적 변혁의 움직임은 말하는 것으로서 더욱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법학교수들의 주된 관심이, 지난날 교수들의 성직자적 지위 그것과는 달리 교권과 속권, 봉건제와 도시의 문제 등 세속적 정신에서 유래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그들을 우리들은 근대적 의식을 잉태한 최초의 교수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投 稿 案 內 ▷

『大學教育』 제70호(94. 7. 1 발간)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① 대학교육에 관련된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 각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외국 고등교육의 동향 소개,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으로 다음 칼럼에 해당하는 글
- ② 해당 칼럼 :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교수담론」

2. 분 량

- ①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 200자 원고지 45장 또는 5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7장 또는 8장(행길이 80, 행간 14로 하여 1장당 29행 기준)
- ② 「교수담론」 :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2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3장 또는 3장 반

3. 기 한 : 1994년 4월 10일

4. 고 료 :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 출 처 : ① 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앞
② 전화 780-7942, 783-3891, 팩스 780-8311

6. 참 고 사 항

- ①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논단」의 경우, 반드시 200자 내외의 요약문이나 발췌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국한문을 혼용하되 한자를 제한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어를 써 주십시오.
- ④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